古書解題

洪武正韻譯訓

李　崇　寧

一

世宗大王의 業績으로서 洪武正韻譯訓은 이미 오래 前에 湮滅된 것으로 여겨온 것인데 筆者가 解放뒤 그 所在를 發見하고 震檀學報 第二〇號(一九五九年 八月刊)에 公表하므로서 學界에 데뷰하게 된 것이다. 이제 寶物로서 指定되고 所有主는 故 華山書林主 李聖儀氏이어서 지금 그未亡人이 保管中이다. 全一六卷 八册, 第一册(卷一・二)은 缺本, 第二册(卷三・四)의 卷三에서 「八眞」의 韻目의 字音中 「照, 審, 穿……並, 明, 牀」의 字母까지의 字音의 한글表音만이 剪除되고, 第四册(卷七・八)의 卷七에서 上聲 「一薰・二紙・三薺・四語」의 各韻目의 字音이 剪除되고, 卷八의 「五姥・六解・七賄・八軫・九旱・十產・一一銑」에서 字目 「八軫」의 字母 「穿・心」에 해당하는 字音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 字音의 한글表音이 剪除된 것이다. 其外는 다 完全히 維持된 것이니 剪除된 部分은 再構할 수 있으나 아까운 일이다. 字母音의 陰刻은 東國正韻의 字母陰刻과 同一하고 한글의 陽刻은 木活字는, 漢字는 大字가 安平大君의 字體인 양 보이고, 小字는 甲寅字로서 東國正韻의 活字의 字體 그대로이다. 洪武正韻의 譯訓의 着手는 不明하나 世宗二十七年(西紀一四四五年)正月에는 이미 着手된 듯하고 完成은 景泰六年 仲春(端宗三年 西紀一四五五年)이니 十年餘의 時間이 걸린 難作業이었다.

이 洪武正韻譯訓이 學者들의 視野에서 자취를 감춘 時期를 推定하기는 어

※ 필자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국문학전공. 문학박사

려우나 徐敬德의 聲音解에서도 皇極經世書의 影響은 뚜렷하나 이 譯訓을 못 본 듯하며, 李睟光 李瀷의 韻書云云에서도 譯訓은 擧論되지 않았고 申景濬 黃胤錫도 그 韻書研究에서 譯訓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朴性源의 華東正音通釋韻考나 洪啓禧의 三韻聲彙의 華音·東音云云에서도 三韻通考·四聲通解는 나와도 譯訓의 內容에는 言及이 없다. 그러고 보면 實學時代의 語學者도 譯訓을 몰랐다는 結論이 나온다. 實學時代에 佛經諺解의 漢字音을 正當한 古音으로 評價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東國正音의 새 漢字音이란 觀念은 뚜렷하지 않았고 東國正韻의 册名이 나오며 內容은 오직 佛經諺解에서 알았으나 그것이 東國正韻과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를 몰랐다. 李匡師의 「五音正序」에서도 東國正韻을 이름조차 들지 않았고 漠然하게 「其時所撰 全書失於壬辰之亂 惠莊朝所作佛經諺解 一遵是音 遍在寺刹」이라고 했을 뿐이니 하물며 洪武正韻譯訓은 이름도 內容도 잘 모르고 있었음이 當然하다. 여기서 黃瓚의 登場이 解釋될 리도 없고 漠然하게 「世宗大王肇刱訓民正音 頒行遐通 於是乎音學大闡(安祐의 華東叶韻通釋의 跋)」이라고 나옴이 一般이었다. 그러므로 壬辰亂以後 또는 實學時代에는 이 譯訓이 東國正韻과 아울러 學者의 눈에 띄지 않았고 그래도 東國正韻은 이름은 가끔 나타나나, 譯訓은 完全히 숨겨진 것이라고 하겠다.

二

洪武正韻은 明初에 樂紹鳳·宋濂이 奉敎하여 엮은 韻書로서 洪武八年(西紀一三七五)에 完成된 것이니 李朝建國 以前의 事實이 된다. 本是 元이 北原에 定都하고서는 北方音을 爲主로 하였고, 北曲은 北方音에 依해 作曲된 것이고, 韻書로서도 北方音을 資料로 하여 엮은 周德淸의 中原音韻이 나타나서 可謂 北方의 方言이 標準音이 되었으니 言語政策의 重大한 轉換이 된다. 北方音은 入聲의 -k, -t, -p가 喪失되어간 字音인데, 이것이 政治力을 背景으로 그 勢力을 擴大해 간 것이다. 그러다가 明이 建國하고 보니 字音의 分裂에 苦悶하게 되었고 宋의 廣歌의 死活의 韻書와 같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明은 南原語를 標準音으로 삼자니 北方音과의 極甚한 差異에서 大膽한

言語政策을 考案한 것이 漢字音의 調整이라고 할, 人爲的인 折衷式 韻書를 엮어서 言語統一의 基準을 삼으려고 했다. 이러한 意圖에서 洪武正韻을 엮게 된 것이다. 따라서 洪武正韻은 한 方言을 基準으로 한 것은 아니고, 人爲的으로 모자익細工業의 作業과도 같이 古典的인 原則과 各地方의 現實音을 折衷한 架空의 韻書가 되고 말았다. 張世祿의 「廣韻研究」에서(二六七面)

是可見 洪武正韻亦爲文人學士雜集古今韻書之作 非純粹依據於一種方音也 蓋出於當時政治上一種正音之方略 不似中原音韻中州韻之爲作曲而設……

이라고 한 것이다. 王力의 「中國音韻學 下册(二二六面)」에서

是許多方言音雜揉而成的……這裏頭能發見多少當時各地方音的痕跡 也不是完全沒有同處的……

이렇게 보면 韻書로서는 洪武正韻은

(1) 人爲的으로 字音統一을 위해 엮은 韻書로서 實用可能性도 없거니와 韻書로서의 價値도 없다.

(2) 言語의 統一을 人爲的으로 또는 政治力에 依해 實踐할 수 있다고 믿었던 當時의 言語觀이 露出된 것이다.

따라서 이 洪武正韻은 當時 實用 될리도 없었거니와, 오늘날 韻書研究에서 研究對象으로 看做하지 않고 있다. 勞力에 比하여 너무도 冷待와 蔑視를 받은 韻書이었고 研究對象이 될 價値는 發見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世宗大王으로서는 이 洪武正韻이 明의 國家的 事業의 하나이었던 만치 言語政策의 示範으로 여기고 또 그 價値를 크게 認定했었다. 이것은 또한 集賢殿學士에게는 偉大한 事業이요, 永久히 修正될 수 없는 鐵則의 原理가 담긴 文獻으로 생각했다. 申叔舟의 洪武正韻譯訓序에서

「……自沈約著譜 雜以南音 有識病之 歷代未有正之者 洪惟皇明太祖高皇帝愍其乖舛失倫 命儒臣 一以中原雅音 定爲洪武正韻 實是天下萬國所宗……」

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世宗은 韻書研究의 大家이었으니, 어찌 이 時代的 巨作인 洪武正韻을 하나의 事實로만 다룰수 있었으랴. 世宗은 두 가지로 態度를 잡았으니 하나는 韓國의 漢字音을 中國字音의 體系에 맞도록 改革하려고 한 것이 東國正音인데, 韓國의 洪武正韻은 곧 東國正韻이다. 그러나

또「吾東國世事 中華而語音不通 必賴付譯 首命譯洪武正韻」으로 中國語의 學習의 便宜를 提供코자 그 譯訓에 着手한 것이다. 여기서 世宗이 韻書의 大家라는 點과 中國語의 學習을 위해서 「譯訓」을 命한 것이라는 點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世宗이 배운 것은 人爲的으로 言語의 革命을 成功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漢字音의 改革을 推進한 것이고 (東國正韻), 아울러 그 譯訓에 着手하여 中國의 現實音을 밝혀 中國語學習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었다.

三

洪武正韻의 譯訓을 着手하려니 그 漢字로 表記된 反切法을 가지고는 도저히 洪武正韻의 字音을 正確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譯訓에 從事한 集賢殿學士의 名單은 다음과 같은 專門家들이다.

成三問 曹變安 金曾 孫壽山 申叔舟 여기에 首陽大君과 桂陽君이 出納을 監掌케한 것이다. 그래도 遲遲不振이었으므로 文宗이 即位하자 「重加雙校」를 위하여

魯參 權引 壬元濬

의 三人을 增員한 것이다. 世宗이 그完成을 보지못하고 昇遐하셨고 또 文宗도 結果를 기다리지 못하고 昇遐, 다시 端宗도 三年째에 가서 十年餘를 거친 作業이 겨우 完成된 것이다. 世宗二十六年 二月 十六日 議事廳에서 古今韻會擧要를 韻會諺解로 刊行하려던 計劃은 崔萬理의 反對上疏도 있었지만 中斷된 것으로 보는데, 世宗은 뒤이어 洪武正韻譯訓으로 方向을 바꾼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그러나 洪武正韻이 漢字의 反切法으로 字音이 表記되었으므로 그것으로 各 字音을 正確히 따질수는 없게 되었다. 여기서 明의 學者를 捕捉하여 實地로 그 發音을 調査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第一次로 걸려든 明의 學者가 바로 翰林學士 黃讚이다. 黃讚은 成化年代에 活躍한 黃讚도 있지만 이 黃讚은 그 黃讚이 아니다. 世宗 二十七年 正月에 遼東에 流配된 黃讚은 明朝進士 提名碑錄에 의하면「江西 吉安府 去水縣」出身의 黃讚이다. 字 宜璋 宣德四年(1429) 赴試하여 進士가 되고, 翰林學士

로 뒤에 刑部主事에 任命되다. 그리하여 淸廉하므로 上司 周新에게 몰려 四川省의 威海衛로서 流配, 그리고 오랜 國境守備에서 다시 遼東으로 移配 얼마 아니가서 病死하는데 그 卒年이 大體로 世宗三十年頃이 아닌가 한다.(이에 대하여는 가리·K·레드야드氏 論文이 있다). 그러나 이 黃瓚으로는 洪武正韻의 字音에 明答을 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차라리 國境守備의 見解는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韻學의 學者가 아니기 때문이다. 往訪한 申叔舟 成三問들이 失望했을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世宗三十一年 十二月 明의 使臣 倪謙과 司馬拘가 登極詔를 가지고 來朝했을 때에 世宗이 申叔舟와 成三問을 시켜 韻書를 質問시키는데, 快答을 얻은 적이 없다. 申叔舟의 譯訓序를 보면 中國往來 七·八次에 「……意未得一遇精通韻學者」라고 한 것이나 「以至殊方異域之使 釋老卒伍之微 莫不與之相接 以盡正俗異同之變」의 苦心과 勞力은 참으로 컸다. 洪武正韻이 어느 方言을 記述한 것도 아닌 人爲的인 韻書이기로 黃瓚이든 倪謙이든 快答을 줄 수 없었을 것이고, 譯訓事業이 얼마나 至難의 事業이었을 것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四

洪武正韻譯訓을 洪武正韻의 各 字音을 한글로 表音한 것이어서 그 體系의 責任은 譯訓에는 없다. 序文에서 「用訓民正音以代反切 其俗音及兩用之音 又不可以不知. 則分注本字之下 若又有難通者 則略分注釋 以示其例」가 더했을 뿐이다. 反切에서 오는 不正確을 한글로 正確히 表音하고, 또 俗音이나 두 가지를 읽는 字音을 明記하고 또 注釋이 必要한 것은 本字 아래 또는 特記할 事實은 注釋을 따로 더한 것 등이 洪武正韻보다 譯訓이 編纂에서 考慮되고 加筆된 것이나, 本 體裁를 左右한 것이 아니다. 平聲을 例로 든다면 「十四歌」에서 陰刻으로 「見」字를 내세워 所屬字母를 밝히고, 그 아래 한글 「거」를 쓰고 그 아래 實例로 歌를 들고, 그 아래 小活字(甲寅字)로 兩行으로 注釋 또는 字意가 붙어 辭典의 구실을 한다. 同類의 字母에 屬할 字音을 또 同類의 韻目을 들 字音을 한 곳에서 다룬 셈이 된다. 이 字母는 三十一字母로서 廣韻의 三十六字母에서 舌上音의 四母와 脣輕音의 次淸一母는 使

用되지 않기로 이를 省略하여 三十一字母가 된 것이다. 韻母도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한글로 表示된다. 韻母의 中聲만을 表示하면」

東 ㅜㅠ	支 ㅡㅣ	齊 ㅖ
魚 ㅠ	模 ㅜ	皆 ㅐㅒㅙㅞ
灰 ㅟ	眞 ㅣㅡㅜㅠ	
寒 ㅓㅕ	刪 ㅏㅑㅘ	先 ㅕ ㅖ
蕭 ㅕ	爻 ㅏㅑ	歌 ㅓㅝ
麻 ㅏㅑㅘ	遮 ㅕㅖ	陽 ㅏㅑㅘ
庚 ㅣㅓㅟㅞ	尤 ㅡㅣ	侵 ㅡㅣ
覃 ㅏㅑ	鹽 ㅕ	

와 같이 된다. 또 俗音의 表示도 참으로 譯訓의 生命이 된 것이다.

溪：컨 看 丘寒切 俗音칸

見：건 干 居寒切 俗音간

위와 같이 一段 洪武正韻 그대로의 反切, 「丘寒切 居寒切」로 字音表記를 中國式으로 달고 그 위에 「컨·건」으로 한글로 字音을 달고 끝에 俗音을 달았다. 勿論 여기서 注釋이나 字義의 解釋이 뒤 따른 것은 勿論이다. 이러한 中國의 當時의 俗音表記가 價値를 가진것이라고 하겠는데, 注釋의 一例를 든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卷十五, 「九合」에서

匣：홥 含胡閣切 韻內中聲ㅏ音諸字 其聲稍深 宜以ㅏ, 之間讀之 唯脣音正齒音以ㅏ呼之 俗音 홥 韻中諸字終聲同

이것이 有名한 四聲通攷凡例의 「ㅏㅓㅗㅜ……」를 中國音이 「重而深」하기로 「ㅏ·, ㅓㅡ·, ㅗ·, ㅜㅡ……」로 읽으라는 規定이 여기에 起源됨이 밝혀지는 것이다. 따라서 洪武正韻은 韻書로서 價値가 없다고 하더라도 譯訓에는 貴重한 여러 事實이 간직된 것이기에 우리 國語學에서 貴重한 文獻이 되는 것이다.

五

이 洪武正韻 또는 그 譯訓이 後世에 큰 影響을 끼친 것이다. 이 譯訓이 너무도 방대한 量이고 글자를 찾기 어려움을 考慮하여 世宗은 四聲通攷를 엮

게 한 것이다. 그 體裁는 「한글」을 앞에 내세우고 平上去入의 四聲으로 順序를 잡고 淸濁으로 나누고 字母로 系列을 맺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四聲通攷도 傳해지지 않기로 正確히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이 崔世珍의 四聲通解로 繼承된 것인데, 四聲通攷는 곧 洪武正韻譯訓의 體裁를 바꾼 縮小版이라고 하겠다.

이 四聲通解도 이 四聲通攷를 基本으로 修正한것인데 (特히 俗音에서) 韻母의 中聲(母音)을 보더라도 韻目 「八眞」이 譯訓은 「ㅣㅡㅜㅠ」인 것을 四聲通解에서는 韻目을 둘로 나누어 「眞」은 「ㅣ」, 「文(새로 設定)」을 따로 定하고서 「ㅡㅜㅠ」로 나누었다. 그런데 이 四聲通解는 그 뒤 實學時代의 韻書研究에서 「華音(中國音)」을 云云할 때에는 반드시 參考가 된다. 적어도 三韻通考 皇極經世書와 아울러 四聲通解가 重要한 參考書가 되었으나 그것이 洪武正韻譯訓에서 起源한 것임은 모르고 있다.

世宗大王의 이러한 譯訓에의 着手도 大膽한 것이 었고, 申叔舟의 勞若도 참으로 莫甚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그譯訓의 研究가 多角度로 展開되었으면 한다. 아직 寶物로 指定되어 이 文獻에 쉽사리 손을 댈 수 없으나 影印本으로 널리 國內外에 配本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